

##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연구

소명환 · 윤성식 · 남궁석\*

부천전문대학 식품영양과 · 서울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 A Study on the Prolongation of Educational Term of th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Myung-Hwan So · Sung-Sik Yoon and Sok Namk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Bucheon Junior Colleg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propriety of prolongation in educational term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at junior college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dietitian by giving substantial education.

The prolongation of educational term from two to three years is necessary to cultivate a more excellent dietitian because of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the freshmen in junior colleges are poor in basic scholastic ability which is needed for the study of nutrition science.

Second, many new subjects which will support the new roles of dietitian,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should be supplemented in curriculum.

Third, the subject of spot-practice for dietitian should be established as a regular course in curriculum.

#### I. 서 론

인간의 행복은 건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위협을 크게 받아 왔으나 항생제와 같은 치료약과 백신을 비롯한 예방약의 개발에 힘입어 오늘날은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식생활과 관련이 있는 질병들, 예로서 암, 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비만 등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의약품의 사용이나 수술로서 간단히 치료할 수가 없으므로 평소의 영양 관리를 잘 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1962

년 식품위생법에 영양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1963년에는 이의 실행을 위한 영양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영양사 양성을 위하여 학교를 보건사회부에서 지정함에 따라 1966년부터 영양사 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는 전문대학 47개교와 4년제대학 55개교가 있고 1990년 한 해에 배출된 졸업생의 수는 5,711명이었다.<sup>1)</sup> 이중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의 수가 3,963명이었고, 4년제 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의 수는 1,748명이었다. 또 실제로 취업을 하고 있는 영양사의 수는 약 5,000명 정도

인데 이중에서 전문대학 출신 영양사가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영양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영양사의 역할과 업무를 볼 때, 영양사가 지녀야 할 지식과 기능은 매우 넓고 깊어야 한다.

식품 및 영양학 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 뿐만 아니라 조리에 대한 기능도 높아야 하고, 금식시설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있어야 한다. 또 편식자를 상대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상담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상담에 대한 기법도 잘 알아야 한다.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의 전문지식과 기능을 입학 당시의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대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기에는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들 사이에서 현행의 교육연한 2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sup>3,4)</sup> 한편 현직 영양사들도 2년의 교육연한 내에 영양사가 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것이 무리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

영양사는 영양관리의 과학화를 통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료 전문인의 일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그 역할이 잘못 인식되어 단체급식소에서 단지 식단이나 짜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이러한 실정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해 내고 있는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연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영양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채 사회로 배출해 온 것도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능한 영양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현행 교육연한 2년이 부적절함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연한에 관해 검토를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각종 통계수치는 각종 연감<sup>1)</sup>과 전문대학편람<sup>6)</sup>을 참고하였고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과학과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현행 교육연한 2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에 재직중인 교수들과, 전문대학 식품영양과를 졸업하고 현재 재직중인 현직영양사 및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수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는 1989년 3월 현재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국의 47개 전문대학에 재직중인 181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교수 수는 30개교의 108명이었다.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109명이 응답해 주었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학년(신입생) 300명, 2학년(재학생) 200명이 응답해 주었는데 응답자는 모두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이었다.

### 3. 설문조사 시기 및 방법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식품영양과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는 1989년 3월 20일에서 4월 20일간에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1989년 4월 30일에서 5월 30일 간에 영양사 월례회에 참석한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식품영양과 신입생과 2학년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는 1991년 3월 8일에서 3월 11일 간에 해당 5개 전문대학의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 4. 설문조사 내용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 및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2학년 재학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 ① 현 교육연한 2년에 대한 견해,
- ② 바람직한 교육연한,
- ③ 교육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또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신입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고등학교 때에 대학진학을 위하여 준비한 학과의 계열과 선택한 과학과목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영양사 양성 교육 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

우리나라의 영양사 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영양과, 영양학과, 식품영양과, 식품영양학과, 식품과학과 또는 식생활학과를 졸업한 자로 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 장관의 면허를 받게 되어 있다.<sup>7)</sup>

현재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개설된 교육기관으로는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면 1990년 현재 영양사 양성학과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의 수는 전문대학 47개교, 4년제 대학 55개교이었고, 1990년 한해에 배출한 졸업생의 수는 전문대학이 3,963명, 4년제대학이 1,748명으로 전문대학쪽이 훨씬 많다.

한편 대한영양사회에서 행한 현직 영양사의 학력 분포 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전문대학 출신 영양사의 수가 4년제대학 출신자의 수보다 훨씬 많아서 전문대학 출신 영양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6년의 조사<sup>8)</sup>에서는 72.4%, 1988년의 조사<sup>9)</sup>에서는 72.1%, 1989년의 조사<sup>2)</sup>에서는 74.5%이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영양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의 성패가 영양사 제도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1991년 3월 현재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국의 전문대학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수는 모두 49개교인데, 이 중에서 국립이 2개교이고 나머지 47개교는 사립이다. 1991년도의 신입생 입학정원은 전체 4,880명이며, 이중 주간은 4,200명이고 야간은 680명이었다.

Table 1. 영양사 양성기관의 종류 및 졸업생 수의 연도별 현황

연도	양성기관 수			졸업생 수		
	전문대학	4년제대학	계	전문대학	4년제대학	계
1981	25	29	54	2,120	688	2,808
1982	32	31	63	2,400	857	3,275
1983	36	31	67	3,240	1,018	4,258
1984	41	36	77	3,640	988	4,628
1985	41	37	78	3,760	1,457	5,217
1986	41	40	81	3,720	1,623	5,343
1987	43	42	85	3,760	1,580	5,340
1988	46	52	98	3,840	1,610	5,450
1989	47	52	99	4,019	1,653	5,672
1990	47	55	102	3,963	1,748	5,711

자료 : 문교통계연보(1981~1990)<sup>11)</sup>

Table 2. 식품영양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현황 (1991년 3월)

학교명	설립	소재지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사립	서울특별시	80	-	80
고려대학교병원보건전문대학	"	"	40	40	80
배화여자전문대학	"	"	80	-	80
숭의여자전문대학	"	"	40	40	80
한양여자전문대학	"	"	120	80	200
경남전문대학	"	부산직할시	120	40	160
동래여자전문대학	"	"	120	-	120
동주여자전문대학	"	"	80	40	120
부산여자전문대학	"	"	80	-	80
계명전문대학	"	대구직할시	80	80	160
대구공업전문대학	"	"	80	-	80
대구전문대학	"	"	80	-	80
신일전문대학	"	"	80	-	80
영남전문대학	"	"	120	-	120
경기간호보건전문대학	"	인천직할시	80	-	80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	"	80	-	80
광주보건전문대학	"	광주직할시	80	-	80
동신전문대학	"	"	80	-	80
서강전문대학	"	"	120	-	120
송원실업전문대학	"	"	120	-	120
대전보건전문대학	"	대전직할시	80	40	120
대전실업전문대학	"	"	80	-	80
중경공업전문대학	"	"	80	-	80
동남보건전문대학	"	경기도	80	-	80
부천전문대학	"	"	120	-	120
서울보건전문대학	"	"	120	40	160
수원여자전문대학	"	"	40	80	120
신구전문대학	"	"	120	-	120
신흥전문대학	"	"	120	80	200
안양전문대학	"	"	120	-	120
유한공업전문대학	"	"	80	40	120
장안전문대학	"	"	120	-	120
동우전문대학	"	강원도	120	-	120
상지대학교병원전문대학	"	"	80	-	80
춘천전문대학	"	"	40	-	40
충청전문대학	"	충청북도	80	-	80
예산농업전문대학	국립	충청남도	40	-	40
혜전전문대학	사립	"	40	-	40
김천전문대학	"	경상북도	80	-	80
상지전문대학	"	"	80	-	80

Table 2. 계속

학교명	설립	소재지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포항전문대학	"	"	80	40	120
마산간호보건전문대학	"	경상남도	40	-	40
양산전문대학	"	"	80	-	80
진주전문대학	"	"	80	-	80
창원전문대학	"	"	80	40	120
통영수산전문대학	국립	"	80	-	80
기천여자전문대학	사립	전라북도	120	-	120
목포전문대학	"	전라남도	80	-	80
제주전문대학	"	제주도	80	-	80
계			4,200	680	4,880

자료 : 1991년도 전문대학 편람<sup>6)</sup>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 5개교, 부산 4개교, 대구 5개교, 인천 2개교, 광주 4개교, 대전 3개교, 경기 9개교, 강원 3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경북 3개교, 경남 5개교, 전북 1개교, 전남 1개교, 제주 1개교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 2. 영영사의 역할 정립과 자질 향상

영영사에 대해 1980년 유럽영양사연합에서 정의한 내용<sup>10)</sup>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영사는 식품과 영양학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된 자로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식생활에 영양학 분야의 과학지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일익을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1976년 국제노동기구의 국제직업분류<sup>10)</sup>에서도 영영사를 준의료 전문직종으로 보아 「0.69.10(일반영양사), 0.69.20(공중보건영양사), 0.69.90(기타 영양사)」로 세분하고 있다. 0.69단위의 직업은 영양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준의료 전문직업으로

- ① 개인 또는 집단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획·감독하고,
  - ② 보건증진 프로그램 중 영양과 관련된 부분을 감독·평가하며,
  - ③ 지역사회에서 식품영양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조언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병원이나 기관에서 개인 또

는 집단을 위한 치료용 식사나 일반적인 예방식사를 계획·감독하고,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영양재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와 보건 프로그램의 영양적인 측면에 대한 계획·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영사가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취업분야별 영영사의 분포를 보면 공장, 사무실 등의 산업체 단체급식시설이 50.7%, 국민학교 급식소는 15%이며, 병원은 10%로 아주 낮다.

참고로 외국 여러나라의 영영사 진출분야를 요약하면 Table 4와 같다. 모든 나라 공히 절대다수의 영영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보건소와 영양교육기관에 근무하거나 영영사 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외국의 영영사는 대부분이 의료분야에서 근무하고 집단 급식소에서 급식관리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인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영영사는 절대다수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국의 영영사는 의료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영영사는 주로 집단 급식소에서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영영사의 직무에 대하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Table 3. 우리나라 영양사의 근무분야

근무분야	1989년		1990년	
	영양사수	%	영양사수	%
공장 · 사무실	2,527	57.6	2,850	57.7
연구소	27	0.6	35	0.7
호텔	47	1.1	62	1.3
연수원 · 훈련원	143	3.3	156	3.2
대학식당 · 대학기숙사	146	3.3	157	3.2
백화점 · 쇼핑센타	31	0.7	36	0.7
금융기관	44	1.0	55	1.1
관공서	-	-	29	0.6
병원	474	10.8	524	10.6
국민학교	674	15.4	740	15.0
중 · 고 · 특수학교	74	1.7	85	1.7
교육청	41	0.9	52	1.0
사회복지시설	100	2.3	120	2.4
특수시설	29	0.7	8	0.2
급식산업체	19	0.4	19	0.4
기타	10	0.2	11	0.2
계	4,386	100	4,939	100

자료 : 대한영양사회<sup>11,12)</sup>

Table 4. 외국 여러나라의 영양사 취업분야

나라이름	취업 영양사수	분야별 영양사 분포율 (%)						
		병원	집단 급식소	보건소	행정부	교육	개업	식품 산업
덴마크	2,350	50	-	50	-	-	-	-
프랑스	2,300	89	2.2	1.6	-	2	2.5	1
서독	3,100	70	2	6	1	3	-	1
네델란드	1,935	72	0.3	16	0.4	25	13	3
스웨덴	1,700	76	20	-	1	1	1	-
영국	1,715	80.6	0.5	-	2.1	3.4	3.0	3.3
미국	35,000	65	5	10	5	5	5	5

자료 : 대한영양사회<sup>13)</sup>

- ①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②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③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④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⑤ 종업원에 대한 영양교육 및 위생교육이다.<sup>14)</sup>

그런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영양사가 식단 작성, 영양가 산출, 급식일지 기록 등을 잘 하고 있지만 피급식자에 대한 영양지도, 피급식자의 영양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5)</sup>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영양사 본래의 업무가 아닌 일반사무, 기숙사 사감, 매점 운영, 구판장 관리, 실험실 업무 보조, 새마을 금고 운영 등을 맡게 하는 집단급식소도 30%나 된다는 점이다.<sup>15)</sup>

외국의 경우는 영양사가 산업체에 근무하더라도 급식관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업체 건강관리센터에서 의료진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경향이 높다.<sup>16)</sup>

또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역할에 있어서도 외국의 경우는 여러 영양사가 질병별로 세분하여 전담하게 되어 의사와 팀을 이루어 치료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만<sup>17)</sup> 우리나라의 영양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영양사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영양사 자신의 능력 부족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 사료된다.

영양사가 하는 일이 집단급식소에서 식단이나 짜고 영양가를 계산해 내는 일에 그친다면 구태여 모든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배치해야 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로서 식단을 짜서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제공해 주는 전문업체 몇 개만 있으면 이런 일은 충분 하며, 이 식단을 제공 받아서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사가 조리를 하여 급식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업체 영양사도 주방에서의 식단작성 이외에 외국의 경우처럼 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준의료인으로서 영양지도, 영양상담, 영양상태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식단작성, 영양가 계산, 급식장부 정리 등과 같은 사무적인 일은 영양사가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양학 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풍부히 지녀야 함은 물론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기법과 교육기법도 잘 익혀야 하며, 영양상태 평가 방법도 잘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

고 영양사의 역할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져야 한다.

### 3. 사회변화에 대비한 영양사 업무 내용의 변화

우리나라 영양사도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장차 그 역할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sup>16), 17)</sup>

첫째로 급식전문업체가 출현하여 산업체의 집단급식이나 학교의 집단급식을 담당하게 되어 그 결과 산업체에서 직영하는 집단급식소나 학교 직영의 집단급식소 수는 많이 줄어 들게 되고 영양사는 급식전문업체에서 급식관리자 또는 급식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에서는 이미 20~30년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로 서비스 분야의 수입개방과 더불어 외국의 유명한 급식전문업체가 국내에 진출하거나 또는 그간 규모가 커진 국내의 외식업체가 이 분야에 진출할 것으로 본다.

더우기 최근 잇따른 노사분규와 인건비 상승으로 산업체 측에서는 급식소를 직영하는 것보다 급식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고, 급식전문업체에서는 여러 산업체의 집단급식소를 체인점으로 연결하여 전문적으로 경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더욱 좋은 급식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건강과 식생활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영양사가 영양상담자 또는 영양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사망원인 질병이 크게 변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폐렴, 결핵, 장염 등 전염성 질환이 주요한 사망원인이었으나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암, 혈관질환, 심장병, 만성간질환, 당뇨병 등 식사와 관련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요한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바른 식생활과 과학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외국의 경우처럼 영양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을 할 수 있는 개업영양사의 출현이나 영양에 관한 대중교육을 담당할 영양지도원의 활동

Table 5.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분석 (1989년)

사망원인	비율(%)	사망원인	비율(%)	사망원인(%)	비율(%)
암	19.4	고혈압성 질환	6.9	당뇨병	1.7
노혈관질환	13.6	만성간질환	5.5	자살	1.6
불의의 사고	11.9	결핵	2.3	기타	26.9
심장병	8.4	폐렴·기관지염	1.8	계	100

자료 : 경제기획원<sup>18)</sup>

분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인구의 노령화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로 산업체 영양사들이 종업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1990년의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서 남자는 66.9세, 여자는 75세에 달하였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도 4.7%이라고 한다.<sup>19)</sup>

이러한 현상의 산업체 근무자의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수를 높일 것이다. 유엔통계연감에 의하면 미국은 1985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12%에 달했으며,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근로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산업체 및 정부 차원에서의 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산업체 의료팀의 일원으로 영양사도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sup>16)</sup>

일본의 경우도 1985년 통계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9.9%였고,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질병을 가진 노동자의 비율이 1970년에 5%였던 것이 1987년에는 10.1%로 2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산업체 영양사들도 주방에서의 식단작성 외에 건강 관리팀의 일원으로 영양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6)</sup>

우리나라도 1989년 의료보험의 실시 확대로 건강 관리가 모든 직장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멀지 않아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이 영양사들이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인의 일원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장차 우리나라의 영양사도 담당해야 할 역할이 확대

될 것이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양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교과목들, 예로서 상담심리학, 영양교육, 공중영양학, 임상영양학, 영양평가, 전자계산, 통계학 등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 4. 전문대학 신입생들의 과학과목 기초 학력 문제

식품영양과에서 이수해야 할 영양학, 식이요법 등은 첨단 생명과학의 응용분야에 해당되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기화학, 식품화학, 생화학, 생리학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식품영양학과나 식품과학과는 자연계열의 학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고등학교 때에 화학, 생물 등 과학과목 중 2과목을 입시과목으로 선택하여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영양학분야의 학습에 필요한 영어와 화학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영양사 양성 교육기관에 입학을 할 수 있는데 몇 나라의 예를 요약하면 Table 6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의 응시에서 대부분 실패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어 기초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더구나 신입생 선발시에 계열의 구분이 없고, 입시과목에 과학과목을 포함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에 인문계 대학이나 예·체능계 대학을 목표로 진학준비를 한 학생들도 식품영양과에 많이 입학을 하게 되어 입학 후의 전공과목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경기지역의 5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때에 진학준비를 한 학과의 계열과 과학과목의 선택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을 보면 전문대학 식품영양

**Table 6.** 외국 우리나라의 영양학과 입학을 위한 선수 과목

나라이름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영국	스웨덴	서독	스위스
선수교과목	수학 물리학 화학 영어	영어	화학	화학 물리학 수학	자연과학	간호보조 실무	간호보조 실무

자료 : 대한영양사회<sup>13)</sup>**Table 7.**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신입생이 고등학교 때 대학진학을 위하여 준비한 학과의 계열 및 선택한 과학과목

학교명	응답자수	준비한 학과의 계열					선택한 과학과목			
		자연	인문·사회	예·체능	실업	화학	물리학	생물학	지구과학	
A	60	12	47	0	1	8	7	48	9	
B	60	13	45	2	0	6	5	54	8	
C	60	16	43	1	0	9	4	56	8	
D	60	10	50	0	0	5	3	53	9	
E	60	15	43	1	1	7	5	57	6	
계	300	66	228	4	2	35	24	268	40	

과 신입생들의 76% 정도가 고등학교 때에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진학준비를 했으며, 자연계열 학과의 진학을 준비한 학생은 22% 정도에 불과하다. 또 식품영양학 공부의 기초가 되는 화학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공부한 학생은 12%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는 이러한 기초과학교육의 보강과 병행해서 전공과목 교육을 시켜야 하는 2종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것도 2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므로 교육내용의 양이 벅차고, 또 기초과목을 먼저 개설하고 응용과목을 후에 개설해야 하는 순서를 지키기도 어렵다.

### 5. 실습교육의 미흡 문제

현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내용중 중요하면서도 가장 미흡한 부분으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교내 실습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이다.<sup>20,21)</sup> 영양사가 취업하게 될 집단급식소는 그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영양사는 1명 뿐이며 병원의 경우도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아니면 영양사는 대개 1명 뿐이다.

따라서 영양사가 새로 부임해 왔을 때 조언을 받고 상의를 해야 할 선임자가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현장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영양사일 경우에는 영양사 직무가 두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실험실습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실험실습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은 매우 부실한 설정이다. 우선 실험실습교육을 보면 교육과정표에는 실험실습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실험실습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sup>21)</sup>

그 이유는 실습기자재와 실습비의 부족뿐만 아니라 영양사 시험을 위한 이론 수업에 치중하다 보니 실습교육을 충분히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sup>21)</sup>

또한 현장실무교육의 실시에 있어서도 전체 학생을 참여시키는 학교의 수는 적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희망 학생만을 참여시키며, 그 실시시기도 2학년

하계방학 중에 1~2주일 정도 실시하고 있다.<sup>20,21)</sup>

한편 현직 영양사들도 재학시절의 현장 실무교육이 큰 도움이 되며 교육기간은 최소한 4주일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sup>20,21)</sup>.

현장실무교육에 많은 학생을 참여시키지 못하고 실습기간도 충분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실습자의 교섭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20,21)</sup>. 실습시의 교섭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학교가 짧은 여름방학 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실습을 의뢰해 와서 현장측에서 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1)</sup>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문대학 2학년의 여름방학은 영양사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장기간을 현장실무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의 실험실습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중대한 이유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 연한이 짧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도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연한은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6. 교육내실화를 위한 수업연한의 연장

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교육시설, 교수, 교육과정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들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교육시설은 미흡한 상태이었고<sup>21)</sup>, 교수의 자질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교육과정은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피교육자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을 교과목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를 이수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교육연한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저자들이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교교육의 내용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내용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시키려면 교육연한도 자연히 늘어나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수업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전문대학 출신의 현직 영양사 및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2학년 재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면 전문대학 교수, 현직영양사 및

Table 8.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현 교육연한에 대한 견해

견해	응답자수		
	전문대학 교수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	전문대학 재학생
너무 짧다.	9	9	20
짧다.	89	92	170
적절하다.	10	8	10
길다.	0	0	0
잘 모르겠다.	0	0	0

Table 9.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바람직한 교육연한

교육연한	응답자수		
	전문대학 교수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	전문대학 재학생
2년	10	7	10
2년 6월	7	2	7
3년	91	97	166
잘 모르겠다.	0	3	17

Table 10. 교육연한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유	응답자수		
	전문대학 교수	전문대학 출신 현직영양사	전문대학 재학생
더욱 충실향 내용의 교육	96	85	131
4년제 대학과의 학력격차 감소	0	6	22
사회나 산업체에서의 인식향상	0	8	20
기타	0	1	0

Table 11. 외국 여러나라 영양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 및 현장 실무 교육 기간

구분	나라	오스만리아	대만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교육연한(년)		2	4	3	2	2	3	4	3	3	4	2	4	2	4	3
											6			3	6	
												4				
교육연한증	10주	1년	25주	1년	20주	12주	30주	5주	2주	28주	1,200시간	1년	1*	28주	6월	
현장실무교육																

\*졸업후 1년간의 internship 과정. 자료: 대한영양사회<sup>13)</sup>

재학생 대부분이 현행 교육연한이 2학년으로는 짧다고 대답하였고, 바람직한 교육연한은 3년이라고 답하였다.(Table 9). 또 교육연한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수, 현직영양사, 재학생 공히 더욱 충실향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0).

참고로 외국 여러나라의 영양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연한과 교육기간중의 현장실무실습 기간을 살펴보면 Table 11과 같다. 나라에 따라 교육연한은 2년, 3년, 4년, 6년 등 다양하며, 교육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현장 실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법시행령 제12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sup>23)</sup>.

또 전문대학의 의료관련 학과들, 예로서 간호과, 빙사선과, 물리치료과, 임상병리과 등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과학적인 영양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질

병치료를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도 3년(6학기)으로 학제를 개편하여 영양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학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의 연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 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유능한 영양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사유로 교육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첫째, 전문대학 신입생은 영양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여 영양사의 새로운 역할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들을 교육과정에 많이 보충되어야 한다.

셋째, 영양사 현장실무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에 개설해야 한다.

## V. 감사의 글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의 일부입니다. 연구비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신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님과 현직영양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재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VI. 참고문헌

1. 중앙교육 평가원 : 문교통계연보, 정문출판사 (1981~1990)
2.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12, 26(1989)
3. 소명환 :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협의회 학제연수회자료(1988)
4. 장수경 : 한국식품영양학회 제3회 학술심포지움자료(1990)
5.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91, 16(1987)
6.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 전국전문대학 편람,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출판부(1991)
7. 편집부 : 식품위생관계법규, 신팔출판사, p.17(1991)
8.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00, 28(1988)
9.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04, 17(1988)
10. Dartois, A. M. : 국민영양, 111, 23(1989)
11.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15, 15(1990)
12.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25, 23(1991)
13.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01, 2(1988)
14. 편집부 : 식품위생관계법규, 신팔출판사, p.55 (1991)
15. 대한영양사회 : 국민영양, 101, 22(1988)
16. 김병구 : 국민영양, 119, 10(1990)
17. 문수재 : 국민영양, 108, 15(1989)
18. 동아일보 : 10월 17일 제 15면(1990)
19. 조선일보 : 4월 1일 제15면(1991)
20. 박찬성, 김영희 : 신일전문대학 논문집, 1, 389 (1987)
21. 윤성식, 소명환, 남궁석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1), 61(1989)
22. 소명환, 윤성식, 남궁석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1), 32(1989)
23. 문교법전발간편찬회 : 문교법전, 문교법전사, p.78 (1990)

(1991년 2월 7일)